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9월 10일 (제121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 먼저 화해하라

어느 청년이 내게 상담을 왔다. 땅을 팔아 건축현금을 하려고 하는데, 형제가 그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가 '이건 건축현금 드릴 거라서 안 된다'고 했다가 대판 싸움이 났단다. 나는 그에게 "그런 현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먼저 화해하고 합의된 다음에 드러라."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있었다. 어느 분이 건축현금을 하려고 가지고 있던 땅을 내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단독 명의로 된 것이 아니라 형제 앞으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는 동생을 불러 형제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도장을 받아오라고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혔다. 한 형제가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분은 난감해하는 동생에게 "절대 강요하지 마라. 그런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모두가 원할 때 팔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맞다. 성경에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5:23~24)고 말씀하고 있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다. 혹여 건축예물을 드릴 때 남편이 반대하거든, 아내가 반대하거든 억지로 우기면서 하지 말라. 그런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원치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신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고후9:7)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정말 기부를 많이 하는 크리스천 연예인이 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기 위해 삶을 계획할 정도다. 그런데 그에게 철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절대 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처시하냐?'라고 농담을 던지는 자에게 그는 '부부가 싸워가면서 하는 그런 기부는 의미가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교회 짓는다고 성도의 가정에 불화가 이는 건 하나님뿐 아니라 나 또한 원치 않는다. 부부가, 가족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드린 예물로 성전을 지어야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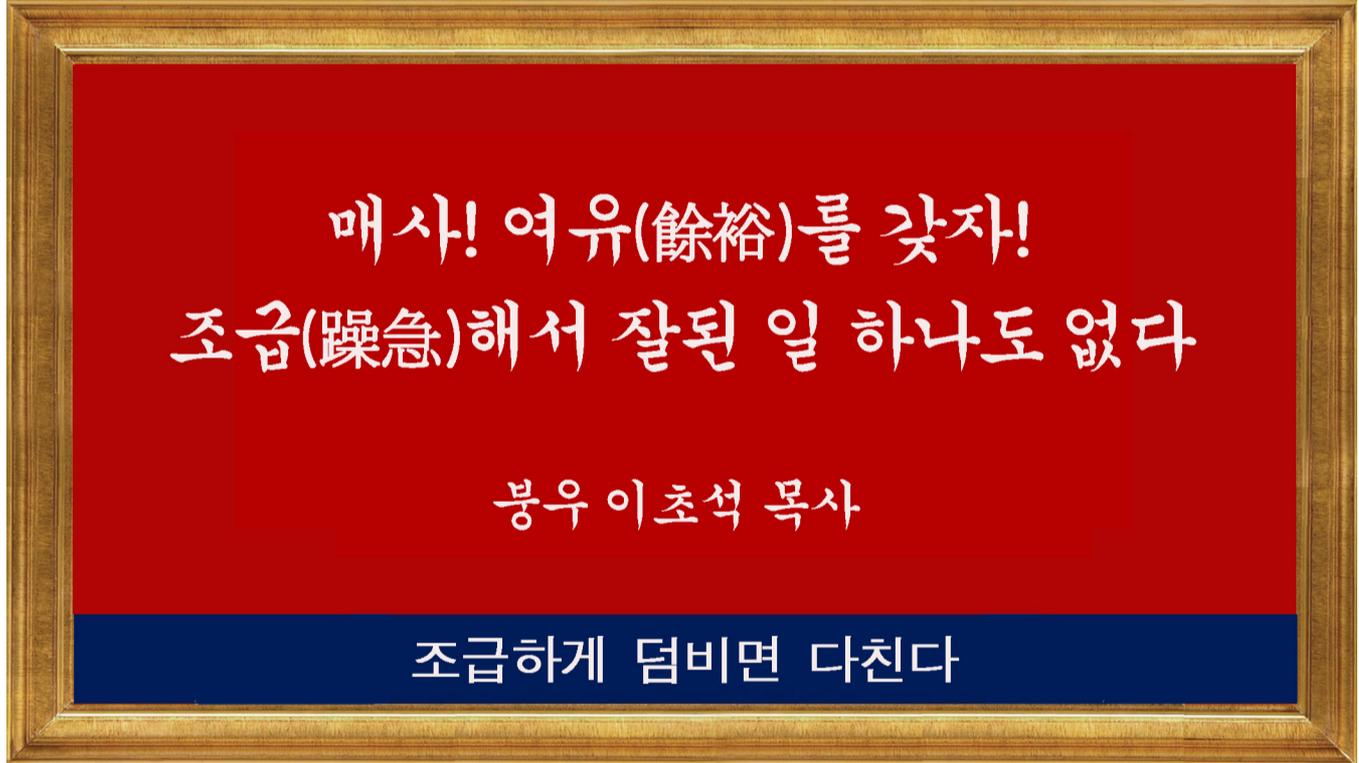
#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한 보증서다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이다."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다.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탐하고 기가 질려버린 열 지파 두령의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원망, 불평하며 포기하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 분명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대대로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마치 선물 포장

넨 곳에 들어가보니 살상 무기들이 곳곳에 매설되어있고, 이를 어찌어찌 통과해보니 화려한 보석 주위에 엄청난 크기의 뱀이 잔뜩 꼬아리를 틀고 앉아 접근을 불허하고 있는 지경인 것이다.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지 못한 자들은 구석구석 유골로 나뒹굴고 있고, 결국에 주인공만이 그 지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보물을 차지하지 않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위해 7년 전쟁을 치러야 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이나 광야를 헤매야 했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에도 다시 7년의 정복전쟁을 수행해야 했다. 악평하

함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한다. 목사님께서 서울교회 성전 이전 문제에 좀 더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깨달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세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면 이미 90년대에 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강권하듯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학교 건물이 나온 게 있다고 하여 추진하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처럼 준비되어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목적지에 다다라보니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다. 그들을 물리쳐야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닳시켜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신1:28).

하나님의 약속은 에덴 이후로 항상 이러한 과정을 요구하신다. 절대 거저는 없다. 마치 판타지 영화처럼, 탐험가들이 황금이 묻힌 동굴이 있다는 전설을 믿고 보물 지도를 어렵게 해독하여 겨우겨우 찾아

던 열 지파 두령의 지도를 따른 애굽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은 내 밥'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 갈렙의 지도를 따른 광야 세대들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눈앞의 허상에 마음을 빼앗긴 불신앙이 원망과 불평을 낳고 약속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겨야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여덟 번째 일어나는 결기로, 야곱이 축복의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던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 눈앞에 실현되어야

'너는 복음을 위해 내가 택했다' 말씀하시며 막으셨습니다. 조금과 무리는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명에 부도너지 맙시다. 처음 당부했듯이, 서로 다투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주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신 문은 닫을 자 없다.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조금하여 그르치지 말고, 여유와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을 이루자. **한은택 목사**

**서울 성전 건축을 위해, 페루 집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학1:1~15)



# 성전 건축을 위해 여유를 갖고 준비하자

제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어떤 사람이 대학을 인수하여 그곳에 강당을 크게 지어 성전으로도 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몰려들어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리하여 그 사람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이 입고 있던 딱 끼고 뺏뺏한 갑옷을 벗기며 '일어나라' 하시고는, "너는 복음을 위해 내가 택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보니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 지르다 꿈에서 깬습니다. 지난 9월 1일 새벽에 꾸은 꿈입니다.

## 조급과 무리는 동색이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근래에 성전 부지를 물색하던 중 조건이 합당한 대학이 나와 그것을 인수할까 여러모로 계획하고 있던 참에 꾸은 꿈입니다. 한때, 대학까지 지어 육영사업을 하는 것이 꿈이었기에 이참에 대학도 짓고, 성전도 짓고 일거양득(一舉兩得)이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꾀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저는 바로 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사실 요즘 제 심경이 많이 복잡합니다.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습니다. '언제 이사하나? 어디로 가나?' 간절한 마음으로 저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빛이 제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른 해주고픈 마음에 솔직히 조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는 '인간의 꾀를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조급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집을 사서 이사하는데도 최소 두 달은 잡는데, 저의 마지막 작품이 될지 모르는 서울교회를 짓는 일에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안 짓는다는 건가요?'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짓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躁急)과 무리(無理)는 동색입니다. 둘 다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서울은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죄를 범했습니다. 블레셋 군과 대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백성들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이레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제사장직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시다(삼상13:14). 성경에는 조급함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잠20:21), "지식 없는 소원은 선지 못하고 밭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

니라"(잠19:2),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잠21:5)...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받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유하시다 유대로 내려가셨습니다. 이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하며 울먹였으나 주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11:40)

하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 내어 살리셨습니다. 만

일 나 사 로가 죽 기 전에 예 수께서 당도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요11:15). 지혜로운 자는 매사 여유를 가진 사람이요, 계획하는 자입니다. 오 리를 가자면 십 리를 가 줄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 걸음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사람이며, 부지런하여 미리미리 계획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눅14:28).

여유를 가집시다. 여유(餘裕)란 시간적, 공간적, 물질적으로 넉넉함을 말합니다. 여유 있게 준비해야 넉넉히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아예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지 않

았기에 늦어진 신앙에 대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전을 짓다 보면 예산대로 딱 맞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여유 있게 자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70을 넘게 살아보니까 때가 있습니다(전3). 그 '때'는 서두르다가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운 때'가 맞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 지라도 그 결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잠16:9).

저도 얼마든지 서울교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300억을 들고 온 사

람도 있었

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재정으로도 넉넉히 서울

교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그 일환으로 오디오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를 무료로 전국과 세계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오디오의 대부분을 차량운행비로 지불하며 전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더욱이 2000년부터는 저를 세계로 내어 보내 가난하고 험벗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셨습니다. 그 역시 여러분의 귀한 물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운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서두

르지만 맙시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바쁠수록 돌아가는 지혜를 요하는 때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멋지고 좋은 교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드린 건축예물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적금을 깨고, 아이 돌반지를 팔고, 대출을 받아 드린 것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할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유실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혹여 못 드린 사람도 상처 입지 말기를 바랍니다. 드리고픈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형편이 안 되면 못 드리는 거지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보다 큰 후원은 없습니다.

다만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울교회니까.' 하고 나 몰라라 해서 안 됩니다. 학개서 1장에는 자신의 집은 화려하게 꾸미면서 성전 건축에 힘을 쏟지 않는 자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자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학1:9). 하나님은 불어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 매사 여유를 갖자! 조급하게 덤비면 다친다

저 역시 주의 종들에게 현금 강요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저 자진하여,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집 안에 행사가 있는데, '돈 많은 형이 해.' 하면서 빠지면 되겠습니까? 성전에 벽돌 한 장이라도 없으면 내가 지은 겁니다. 하나님도 결코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학1:8)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과 정성을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축현금 강요가 아닙니다. 저의 바람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2:2-4)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찬양과 경배 ::

#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된다

한번은 심방을 갔는데, 딸 집에 오신 100세가 넘으신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목사님, 잘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살아보니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삽니다. 제 주변 사람도 그렇고 제 자식들과 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맞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너희가 크면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은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못했고, 사실 담임선생님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어렸을 때 상상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이신 이종남 장로님은 6·25 때 학생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하셨다. 그분이 전쟁터에서 겪으신 일을 말씀하시는데, 한번은 포로로 잡혀서 구덩이를 본인들이 파고 총살을 당하는 순간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뛰어!”라는 소리가 들려서 “어머니” 하며 뛰었다는 거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새벽마다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또 지금도 기도하실 것을 믿어서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 ‘어머니’ 하며 그냥 뛰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본인만 사셨다고 한다. 또 1·4후퇴 때 장마철에 중국군이 밀고 들어와 후퇴하는 중이었는데 앞이 한탄강이었다. 할 수 없이 강물에 뛰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뛰어

들었는데 중국군에 죽는 것보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본인도 죽음의 순간에 ‘예수여! 어머니!’하고 외쳤는데, 그때 갑자기 나무가 옆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여서 그 나무를 잡고 강을 건넜다고 하셨다. 또 한번은 전투 상황에 순간 자신의 앞으로 날아오는 총알이 보여서 그때도 ‘예수여’, ‘어머니’하고 마음으로 외쳤는데 총알이 당신 바로 앞에서 똑 떨어졌다는 간증을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험인 것이다.

언젠가 새벽기도 중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세상적으로 해준 것이 없기에 그날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일 외에는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이런 복을 받았습시다. 주님, 제 아이들도 하나님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 교회, 내 나라가 잘된다. 세계 만민이 우리를 두려워한다(신 28:1~14). 또한 천 대까지 복을 받는다(신 5:10).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이 주 앞에서 왕권과 열 고을의 권세를 누릴 것이다(눅 19:17). 할렐루야!

장영국 목사

:: 신앙논객 ::

# 편리함의 우상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우리 삶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내비게이션 덕분에 길을 찾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다 저장되어 있어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보니 어떨 땐 내 전화번호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세상이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편리해질수록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무지해지는 것이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풍경도 사뭇 달라졌다. 이제는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선명한 LED 화면에 말씀 구절과 찬송 가사를 다 띄워주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더 이상 아침저녁으로 끼고 사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지 않은 지 오래다. 얇은 종이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깨알 같은 크기로 메모하면서 봐야 할 성경이 이제는 방구석 책꽂이 한 귀퉁이에서 먼지만 쌓이는 장식품이 된 지 오래다. 예배 때라도 성경책을 들고 간다면 모를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아예 펼칠 일도 없어진 것이다. 어느새 청년들 중에는 찬송가나 찬양의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부르는 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배시간에 하는 곡들은 가사를 다 띄워주고, 여차하면 폰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꼭 스마트폰이 필요해졌다. 편리함이 우상이 된 셈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내모셨는가? 그들이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광야는 편리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의미한다. 아름답고 넓은 성전도 없고, LED 화면과 자막도 없고, 스마트폰도,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네가 그래도 나를 예배하고 내 뜻을 따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편리한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길 원하신다.

이젠 성경책을 펼쳐서 밑줄도 좀 긋고, 좋아하는 찬송 가사도 외워서 한번 불러보자.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 법.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라고 예외일 순 없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 하나님의 선물

더운 여름날 동생이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수술 전부터 각자 해야 할 몫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서로 바쁘게 자신의 삶을 사느라 얼굴 한 번 제대로 마주하기 쉽지 않았는데, 동생의 수술은 우리를 단 한 번에 모았다. 우리가 가족임을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7월은 나에게 여유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며 도왔다. 가족이고 동생이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이 시간은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챙기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처음에 수술을 한다고 들었을 때는 고민이 많았지만, 그 사건이 오히려 가족과 대화하며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해준 선물이 되었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가족에게는 아름다운 추억담이 하나 늘어난 셈이다.

가족(家族), 늘 뼈저리게 우리가 가족임을 깨닫고 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상황이 되니 피는 물보다 진함을 느낀다. 뽕뽕 뭉쳐 하나가 된다. 외줄보다 삼겹줄이 단단하다는 하나님 말씀을 새삼 깨닫는다.

뜨거운 여름을 감사한 추억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한다.

요즘 서울성전 이전을 위해 작정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임을 느낀다. 다들 하나로 뽕뽕 뭉쳐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 또한 주님께 감사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이인영 집사



:: 소망의 언덕 ::

# 그리움을 남기고 떠나는 교회

내가 사는 기양기도처 옆 골목은 간신히 차 두 대가 엇갈려 지나갈 정도로 좁은 폭에 비해 차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다녀서 항상 붐비고 위험한 곳이다. 그래도 다행히 그 옆에 좁게나마 보행자 도로가 있어 주민들은 안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보행자 도로 옆의 이전 건물을 부수고 새롭게 건물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건물이 다 지어져 갈 즈음 한 장의 안내문과 함께 큰 펜스가 건물 주변으로 둘러졌다. “-이곳은 인도가 아닙니다. \*\*\*교회 사유지입니다.-”

교회에서 건물을 올리면서 주차장 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넓게 확보하기 위해 이전에 있었던 보행자 도로까지 넓혀서 펜스를 설치한 것이다. 사유지니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지만, 오가며 한마디씩 하는 주민들의 푸념은 그냥 흘러들 수 없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것이 아쉬울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다르

구나.’ 하고 말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88체육관을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해왔다. 그 사이 체육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새성전에 입당하는 것 같은 기쁨도 누렸다. 그런데 체육관에서 갑자기 나가라 하니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에 아쉬움이 컸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조용히 기도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주어도 은혜를 잊지 말라’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토록 오랜 시간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터였다.

이제 우리는 곧 88체육관을 떠난다.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이 남았다. 창고를 비워주고 각 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일, 주차 문제로 매일 벌던 경비원 분들과의 인사까지...

떠나는 우리의 뒷모습이 그들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일을 감사로 마무리하자. 체육관 실무진부터 환경미화원까지 우리를 그리워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떠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성큼 더 가까워지리라 믿는다.

이현승 목사

:: 간증 ::

:: 참된 깨달음 ::

#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1988년부터 2020년까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세 번 치료해주셨건만 끝내 떠나버린 아내 윤우자 권사!

서울 올라와 처음에는 다락 하나 있고 방 두 개에 여덟 식구가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니 우리 아내인 윤우자 씨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서울 옥수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집을 매입하여 살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도 잠시, 몇 개월이 못 되어 아내에게 관절염이 찾아와 움직일 수 없어 누워만 있게 됩니다. 유명하다는 곳은 다 다녔고, 용하다는 곳은 다 다녔습니다. 한양대 김성운 박사가 관절염에 일인자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만나려면 2년이 걸려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들어갔더니 관절염 환자는 입원이 안 되고 외래만 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힘 좀 쓰는 분들을 동원하여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또 몇십 년 통원치료를 했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88올림픽을 구경 오셨는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큰 교회를 다니시면서 집회를 하시는데, 마침 망우리에 있는 금난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집회에 참석해서 끝날 때 안수를 받았는데 씻은 듯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누워만 있던 사람이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해서 식구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아프지 않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며 안정적이고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사람인고로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또 재발한 것입니다. 아내가 걸어도

닐 수도 없이 쇠약해집니다. 아내가 수원 에 있는 팔보산 기도원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데리고 갔더니 겨우 걸어 다니는 쇠약한 몸으로 20일 금식기도를 한답니다. 안 된다고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한다가에 두고 내려와 1주일 후에 갔더니 세상에 나~ 산 기도를 밤낮 올라다니면서 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 2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완치가 되어 신앙 생활 나름대로 잘하면서 봉사하고 전도하며 열심히 잘했는데 웬일입니까? 몇 년 후에 또 재발하여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아프게 한 것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윤 권사 치료해주신 것을 체험하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셨으니 윤 권사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불교 골수분자이며, 아버님은 지관이라고 하나요? 못자리 봐주는 유교에 깊이 빠진 분이고, 제사가 1년에 10회 이상 있는 장손 집안으로 철두철미하게 미신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윤 권사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요. "저것(윤우자) 때문에 역대 조상들이 얼마나 역정을 내시겠느냐?"고 야단이었으나 며느리가 아파 죽겠다는데 어쩔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여덟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아프고, 백방으로 좋다는데 다녀도 치료가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치료가 된다니 우리 예수 한 번 믿어보자.'고 결의하고, 한 날한시에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윤 권사는 우리 식구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예수중심교회에 오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시는 박 권사님(노성운 전도사 모친)이 윤 권사 이모님이 되는데, 박 권사님 말씀이 우리 총회장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한번 받으면 치료가 되니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 권사 말이 '거기는 이단이니 이모가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해요.' 하며 철저히 이단시하면서 외면을 했는데, 약 25년 후 또 재발하니 이모님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나 88년도에 철저히 이단시했던 죄가 생각이 나서 선뜻 찾아갈 수 없어 망설이다 나름 회개를 했나 봅니다. 큰 결심

을 하고 이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연로하신 분이 우리가 사는 아산까지 오셔서 윤 권사를 데리고 하계산상집회 하는 기도원에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윤 권사는, "이모님, 아산 배방에는 예수중심교회가 없을까요?" 했더니, 노성운 전도사가 알아본 결과 배방예수중심교회가 있고, 임택함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연이 아닌 크신 은혜지요. 그때가 하계산상집회 첫 주 첫날이었으니 우리 윤 권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거지요. 임 목사님과 초면에 교회 차를 타고 가서 총회장 목사님께 안수받고 귀신이 떠나가서 완치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때는 4주간 집회를 했는데, 첫 주에 병고침을 받은 윤 권사가 집에 와서 감사예물을 준비하여 나와 함께 기도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가면서 '병은 나왔지만, 교회는 옮기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총회장 목사님께서 저를 단상에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장로님! 아들이 대학에 다니는데 하숙집을 정할 때 반찬이 많고 푸짐한 곳에 하숙을 시키겠습니까, 반찬이 시원찮은데 시키겠습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반찬이 많은데 시켜야지요.", "그렇지요?" 하시면서 이렇게 푸짐한 곳에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결단하세요. 오늘 밤 설교 제목이 '결단하라'입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멘' 하고 그 후 교회를 옮기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담임목사님, 사모님, 교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이 윤 권사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하며 일생일대에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잘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윤 권사도 봉사도 잘하고, 교회의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윤 권사를 저보다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아마 윤 권사가 사명을 다한 모양입니다. 우리 가족을 다 구원했으니까요. 8월 12일이면 윤 권사가 소천한 지 3주년이 됩니다. 그리움에 간증 겸 이 글을 올립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죽도록 충성하다가 윤 권사가 있는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배방예수중심교회 최주영 장로

# 비난, 비판

얼마 전 중3 아들과 내기해서 만원을 잃은 적이 있다. 일의 발단은 이렇다. 사람 입에 있는 효소가 '아밀레이스'라고 말할까? 난 "공부를 하려면 똑바로 해라. '아밀라아제'지 어떻게 '아밀레이스'냐?"라고 확신에 차서 비난한 적이 있다. 아들은 정말 답답해하며 만원 내기하자고 했고, 결국 내기에서 지고 말았다. '아밀라아제'는 독일식 발음이라 2005년에 '아밀레이스'로 변경됐다고 한다. 이외에도 '요오드→아이오딘, 부탄→뷰테인' 등으로 변경된 걸 미처 몰랐던 것이다. 1988년에 '읍니다→습니다'로 변경되었다. 회사에서 '습니다'로 문서를 작성한 상급자를 비난했던 내가 생각났다.

이번 일로 아들에게 망신당한 것 같아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일 이후로 자녀들이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는 습관이 생겼다. 같은 사물과 현상을 보고도 배웠던 시기에 따라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내가 배운 지식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선불리 비난하거나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강압적으로 변화시키려 하면 안 된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해결책은 없고 비난, 비판만이 난무한다. 두세 사람이 만나면 생각이 달라 말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이 비난과 비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비난'을 '칭찬'으로 '미움'을 '사랑과 이해'로 바꾸길 소망해본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롬14:13).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7:1~2).

송명국 집사

songmkook@naver.com

##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사고라는 불청객(不請客)이 찾아온다  
사고 원인은 점검부재에 있다  
-봉우